

# 박물관 벗어나 제자리로 돌아가야 '성보'

## 47 타향살이하는 부도와 탐비 국립중앙박물관

웅장한 국립중앙박물관. 대리석으로 장엄된 마당에서 우리나라에 부도가 처음 만들어진 시절의 걸작들을 만나게 됩니다. 영거 화상탑(廉居和尚塔, 국보 제104호), 봉림사 진경 대사 보월능공탑(鳳林寺眞鏡大師 寶月凌空塔, 보물 제362호), 보리사 대경 대사 현기탑비(菩提寺 大鏡大師玄機塔碑, 보물 제361호), 흥법사 진공 대사탑과 석관(興法寺 眞空大師塔과 石棺, 보물 제365호), 거둔사 원공국사승묘탑(居頓寺 圓空國師勝妙塔, 보물 제190호)이 한 줄로 서 있습니다.

경복궁 뜰에 서 있다가 2005년 국립중앙박물관이 용산으로 옮겨 오면서 함께 이사를 온 부도들은 마당에 전시품으로 서 있습니다. 이 부도들은 박물관에 서 있기만 한다면 선사의 생애를 담은 신령스런 표상이기 보다는 그저 하나의 유물에 불과할 것입니다. 학술적인 연구를 위해 잠시 갖다 놓은 것도 아니고 나라를 빼앗은 자들이 제멋대로 감상이나 하려고 자리를 옮겨다 놓은 것을 해방 이후 반세기가 넘도록 제자리로 돌려놓지 못하고 이렇게 박물관의 유물 리스트, 전시목록에 그 현주소를 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성보로서의 정체성은 다 잃어버리고 한 점의 유물로 박물관 뜰이나 지키고 서 있는 부도와 탐비들. 오래 전 이 부도와 탐비의 주인들은 찌렁찌렁 한 시대를 이끌던 고덕들이었습니다.

일본과 프랑스로 약탈됐던 조선왕실의례와 외국 장각도서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역사적인 시점에 나라 안에서 부당하게 자리를 옮겨진 채 한 세기가 다 되도록 타향살이를 하는 이 성보들은 어쩌서 박

“  
성보로서의 정체성은  
다 잃어버리고 한 점의 유물로  
박물관 뜰이나 지키고 서 있는  
부도와 탐비들. 오래 전  
이 부도와 탐비의 주인들은  
찌렁찌렁 한 시대를 이끌던  
고덕들이었습니다.”

물관 마당을 지키고 서 있어야 한단 말입니까?

저러오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부도발 아닌 부도발로 다가갑니다. 맨 앞에 자리 한 영거 화상 (?~844)탑은 844년에 세워졌습니다. 우리나라 부도의 시초는 강원도 양양 진전사의 도의 국사 부도이고 그 형태가 석탑에서 부도로 전이되는 과정이란 점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도의 국사의 제자인 영거 화상의 부도는 팔각원당형 부도의 전형을 이룬 최초의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도 역사에서 최초의 팔각원당형부도인 셈입니다. 제 짝이 맞는지 알 수 없는 지대석 위에 온전한 하대석과 중대석 그리고 상대석, 제법 두께를 가진 탐신 고인돌과 문비와 사천왕상이 조각된 탐신, 기왓골이 정연한 옥개석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상륜부는 모두 상실됐습니다.

이 귀중한 부도는 1914년 일제에 의해 서울 탑골 공원으로 자리를 옮기고 다시 경복궁으로 갔다가 지금은 용산으로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도가 있던 원래의 자리가 어디인지는 불분명합니다. <조선 미술사>나 '조선금석문' 등에는 원주 흥법사지가 원래 자리라고 적었으나 이는 일제에 의한 조작이라는 설도 있어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영거 화상의 부도는 역사적으로나 미술사적으로 국보 중의 국보임이 틀림없지만 못한 후학들은 그 주소조차 분명하게 챙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구산선문의 하나인 봉림산문의 개산조 진경 대사(855~923)의 부도가 서 있습니다. 진경 대사 심희(審希)의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탐비인 '보월능공탑비'에 따르면 진성여왕과 경명왕이 대사를 줄곧 존경해 왕궁으로 초청해 법석을 열곤 했습니다. 그런 선지식으로 개창한 봉림사는 지금 초라한 빈터로 남아 있고 진경 대사의 부도는 박물관 마당에 서 있습니다. 1919년 일제가 경복궁 뜰로 옮겼고 다시 용산으로 온 것입니다. 이때 탐비도 함께 옮겨졌는데 지금 박물관 마당에는 탐만 서 있습니다.

그 옆에는 탐비 하나가 서 있습니다. 양평 보리사터에 있던 대경 대사 현기탑비입니다. 안내판을 읽어 봅니다.

“이 탐비는 신라 말에서 고려 초기에 활동하던 성주산문의 대경 대사 여엄(麗嚴 862~930)의 업적을 기록한 비석이다. 대사가 임직할 지 연이 지난 고려 태조 22년(939)에 세워졌다. 거북받침돌(龜趺)의 거북 머리가 용머리로 바뀌었는데, 이러한 경향은 통일신라 말부터 고려 초기에 만들어진 탐비에서 나타나는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머릿돌(嶺首)의 구름과 용은 매우 생동감 있게 조각됐다.”

양평 보리사도 지금은 발로 변한 옛 절터일 뿐입니다. 대경 대사가 당대에 얼마나 존경받던 고승인지는 부도탑과 탐비를 세우게 된 과정을 설명하는 비문의 한 문장이 잘 말해 줍니다.

“학업을 전해 받은 제자 웅단과 흥정 등 500에 가까운 사람들이 공손히 스님의 도덕을 펴고자 비석을 세울 것을 윤희해 달라는 표(表)를 올렸다.”

그토록 존경 받던 대덕이었지만 그가 임직한 절



국립중앙박물관 마당의 부도 및 탐비 야외전시장. 이 부도들은 박물관이 아닌 본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이 역사의 파도에 휩쓸려 폐사가 되고 나니 절터는 발로 변했고 거기 있던 대사의 탐비는 박물관에 와 있습니다. 1914년 일제가 경복궁 뜰로 옮겼던 것입니다.

더욱 기가 막히는 일은 500여 제자들이 왕에게 건의해 세웠다는 대경 대사의 부도는 지금 이화여자대학교 안에 있습니다. 대학 분관 뒤편에 총장관사가 있고 그 후원에 이렇다 할 표시도 없이 부도만 덩그러니 서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 한 부도는 부도가 아니라 장식물일 것 같아 가슴이 아픕니다.

‘대경 대사 현기탑’ 다음 칸에 서 있는 부도는 옆에 석관 하나를 두고 있습니다. 원주 흥법사지에서 올라 온 진공 대사 탐입니다. 석관과 부도가 함께 전하는 드문 사례입니다. 석관은 부도의 주인이 생전에 사용하던 책을 비롯한 유품들을 넣었던 것입니다. 이 석관이 암시하는 또 하나의 사실은 당시에는 고승의 장례법으로 화장과 매장이 함께 성행했다는 것입니다.

진공 대사 종답(忠湛, 869~940)은 신라 신덕왕과 고려 태조의 왕사를 지냈던 고승입니다. 고려 태조 왕건이 직접 비문을 지어 그의 생애를 기록한 탐비는 지금 조각난 채 박물관에 보관돼 있는데, 임진왜란 때 왜군이 일본으로 싣고 가려다가 죽령에서 두 동강이 나버렸다고 전합니다. 1913년 개진 조각 4편을 찾아냈고 언제부터인가 원주 주정사에 보관되

다가 1913년 창경원 이왕기박물관으로 옮겨지고 다시 광화문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옮겨진 뒤 지금은 용산에 있습니다. 참으로 기구한 운명입니다.

진공 대사의 부도는 팔각원당형을 계승했고 중대석의 운룡문양은 압권입니다. 생생하게 살아 있는 용의 몸통이 휘감고 있는 원형의 중대석은 탐의 주인이 영원토록 발산하는 법력을 표현하고도 남습니다. 상쾌하게 차마 끝이 들리지 옥개석과 가지런하게 드러나는 서까래 문양들도 정연한 세상이치를 상징하는 것 같아 사뭇 연속해집니다.

국립중앙박물관 마당의 부도 전시장 맨 마지막에 서 있는 부도는 거둔사 원공 국사(930~1018) 승묘탑입니다. 높이 268cm의 이 부도는 거둔사지에 잘 모셔져 있었는데 일제강점기 때 서울에 사는 일본인이 자신의 집 마당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1948년 경복궁으로 옮겨졌고 다시 용산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 부도는 처음에 국보 제314호로 지정됐으나 재조정돼 보물 제190호로 강등됐습니다. 제 자리를 잃고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설움도 모자라서 이를 표를 격하시키는 수모까지 주었으니 오늘의 후손들은 원공 국사에게 참으로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나마 원공국사승묘탑비는 현재 거둔사지에 그대로 서 있습니다. 탐비도 처음에는 국보 제119호였으나 보물 제78호로 재조정 됐습니다. 탐비만 있던 절터에 2007년 승묘탑 재현품이 세워졌습니다.



흥법사 진공 대사탑과 석관

원공 국사 승묘탑은 화려한 치장은 하지 않았지만 중대석에 새겨 넣은 팔부신중이 탐신의 사천왕과 함께 고승의 덕화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부도들은 언제까지 그 자리에 유물로 서 있고 재현품이 원래의 자리를 지켜야 할까요? 이 부도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절터에 재현품 조차 세우지 말아야 할 것만 같아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재현품을 박물관에 전시하고 진품은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든지, 임연태-(사인 본지는설위원) mian1@hanmail.net



## 물 없이도 할 수 있는 휘나햇 온열요법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 한번에...OK!

목욕탕 문화가 바뀌었다  
물 없이도 할 수 있는 반신욕법



반신욕을 하면 하체의 따뜻한 혈액과 상체의 차가운 혈액 사이에 대류현상이 일어나 잘순환 된다. 한의학에서 보면 두한족열의 원리로 목욕 노폐물이 땀과 함께 배출되기 때문에 신체의 상태가 좋아진다. 휘나햇반신욕기는 3~4년전부터 하루 200~250명씩 무료체험을 하였으며 지금은 유료화에도 불구하고 체험방을 이용하는 체험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이런 장점 때문에 휘나햇반신욕기는 웃을 입은채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를 동시에 즐길 수 있고 편하아서 책이나 신문 TV등을 볼수도 있어 획기적인 반신욕기로 각광을 받고 있다.

방법)을 혼합하여 특수제작한 슈퍼블랙디스크를 개발하는데 성공했으며, 이를 자사의 브랜드인 휘나햇반신욕기에 내장하여 보건진료소, 노인정, 경로당, 한의원, 산후조리원, 복지원, 등에 납품 하고 있고, 2011년에는 가정용을 개발하여 "특별할 인된 가격으로 한가정에 반드시 한 대씩 보급 될것이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가능성 반신욕기 어디까지 개발했나  
기술의 진보가 건강 혁명을 일으켰다

휘나햇 반신욕기는 한마디로 기술의 진보가 이룩한 건강혁명이다.

휘나햇 슈퍼블랙디스크 반신욕기는 일반제품과, 제조방식이 전혀 다르며 30여종의 광물질에서 방사되는 B.C.P 슈퍼블랙디스크는 설씨450도로 가열할 때 발생하는 특별한 온열이다. 여기서 나오는 원적외선, 음이온, 온열로 반신욕을 즐기는 것이기에 때문에 일반반신욕 발열체 반신욕조와는 비교가 안되는 획기적이 가능성을 갖는다. 휘나햇 반신욕기는 기능성 외에도 친환경을 고려했다. 이음이 편리하고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도록 설계했으며 가구계열을 도입하여 고풍스런 분위기를 위하여 원목(적삼목)으로 제작했다. 휘나햇B.C.P 반신욕기는 신개념의 발명품이랄 수 있다.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

계좌번호: 국민 404601-01-046107  
예금주: (주)휘나햇건강  
판매원, 제조원: (주)휘나햇건강  
\* 대리점, 취급점, 영업사원모집

## 암과 현대병을 쉽게 다스리는 방법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건강법

멸종 위기 식물 177호  
변비 생리통 특효

"세포의 생성을 촉진하고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삼백초 효소 발효액은 심각한 환경오염에 노출된 인체에 건강을 되찾아주는 최고의 처방이다"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관리법  
부림출판사 | 감성적 지름 | 값 5,000원

노화와 난치병을 이기는 삼백초의 놀라운 효능!  
변비, 숙변, 생리통을 없애는 날마다 기분 좋은 건강 비결!  
간질환, 당뇨, 신장질환, 동맥경화, 고혈압, 심장병, 부인병, 비만치료!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삼백초에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게르마늄과 남성 성기 등에 중대한 작용을 하는 아연, 기운을 북돋는 유기붕소가 들어있다. 삼백초를 꾸준히 섭취하면 만성피로가 사라질 뿐 아니라 남자의 스테미너가 넘치고 기운이 솟는다!

문의: 070-7804-5358

계좌: 농협 351-0260-3196-83 예금주: 부림출판사

모리다 요시오 박사와 의사 이토 오사무의 치료 사례- 25,000명을 임상실험한 결과 밝혀진 효소의 놀라운 효과  
반건강 상태는 1개월만에 완치 / 정력이 되살아 난다 / 불임이 치유된다 / 기미가 사라진다 / 속취가 없어진다  
위궤양이 치료된다 / 무좀이 없어진다 / 치질이 치료된다 / 탈모가 치료된다 / 류머티즘 관절염이 치료된다...